

전북서 지지유세 펼친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미완의 동학혁명, 빛의혁명으로 살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날 첫 일정인 익산 유세 현장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포옹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라고 치켜세웠고, 이 후보는 김 의원에게 “민주당에 입당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달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김상욱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을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며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인공지능(AI) 혁명 등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기능과 역할로 보는 것이지 진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며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달라”고 격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 왔는데, 실제로 보면 수구 등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우리 원래 보수 아니고 수구야’ ‘우리 이해집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익집단을 보수라고 부르고 상식적인 정치 집단을 진보라고 불러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김상욱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익산서 ‘국힘 탈당’ 김상욱 의원과 함께 해
이 후보, 군산·전주·정읍에서도 집중 유세

며 “이제는 제지리를 찾아서 비상식은 비상식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출발은 6·3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성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하늘이 곧 사람인 세상을 만들자고 시작한 게 동학혁명”이라며 “동학혁명 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남아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촛불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빛의 혁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서해안 고속도로

공약을 설명하는 한편 추경과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군산 구 시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금엔 정부가 재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추경을 하고 소비 진작을 해 돈이 좀 돌게 하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고집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가 활성화돼 과열되면 정부가 세금을 덜 걷든가 이자를 올리든가 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허파미를 졸라서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다”고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한다고 강바닥에 20~30조원 쓰

는 건 관철고 군산 지역화폐 300억 원 지원은 죽어도 안되냐”며 “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투자라고 하고 돈이 없는 데다 쓰면 낭비라고 하는데 그게 왜 낭비냐”고 반문했다.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전기요금을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없어 앞으로 올라야 한다”며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유지 하든지 해서 에너지 규제 차이를 만드려고 세금 차이를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에 같다. 이상하지 않느냐”며 “지방에서 전기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 송전비를 붙여서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은 그럼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K-컬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전북대 후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전북대 안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인정된 이세종 열사 추모비를 찾아 현화한 뒤 묵념하기도 했다.

이후, 이 후보는 정읍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이후, 이 후보는 정읍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지난 16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구석구석 골목길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석구석 골목길 유세, 시민 호응 얻어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 전주 곳곳에서 이재명 지지 호소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북지역 유세와 관련,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지지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구석구석 골목길 유세활동'을 펼쳤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총무본부장, 테러 대응 TF 간사를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구 유세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유세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선대위 회의가 없는 이날을 잡아 자신의 지역구인 병무청오거리 일원에서 지역 도의원,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새벽과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열었다. 이어 김윤덕 사무총장은 상가 등을 도보로 돌며 전주시 구석구석 골목길 유세를 이어갔다.

거리에서 김 사무총장을 만난 전주 시민들은 “중앙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선대위를 이끌어 가기도 바쁘게 지역까지 와서 유세활동을 한다”며 반갑게 손을 먼저 잡아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에서 이재명이 최다득표를 하도록 주변의 시민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또 전주 시민들을 만난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주시민들께서 민주당을 아껴주신 덕분에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고 마침내 탄핵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수호할 있었다”며 “우리 전북과 전주가 김대중,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전북과 전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을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투표는 미래를 선택하는 일”

김 지사, 대선 투표 참여 독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투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151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대비해 △도내 투·개표소 823개소 설치 △투·개표 사무원 1만2000여명 배치 등 안정적인 선거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이준석 “尹 국힘 탈당한다고

윤 시대착오적 인식 안가려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역겹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썼다.

이어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고, 현재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면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후보(김문수)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난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행사가 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시위를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오월 정신, 정의와 진실 밝히는 힘”

김관영 도지사,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묵념

광주 개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행사 참석

도내 5·18 관련 단체 등과 광주 국립 민주묘지 참배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전북과 광주를 오가며 민주영령을 기리는 뜻깊은 일정을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전에 참석해 열사의 유품을 관람하고, 해설을 들으며 1980년 5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이세종 광장을 찾아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 행사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시위를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에 직접 참여해 금남로4가 교차로까지 행진했고, 이어 열린 전야제 공연을 관람하며 현장 시민들과 함께 오월 정신을 나눴다.

18일에는 전북 지역 5·18 관련 단체 및 도민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헌화와 분향, 묘소

참배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오월 정신은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힘”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도 오월 정신을 가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임근수 열사 추모식이 열렸으며, 19일부터는 전북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2주간 5·18 민주화운동 전북 사진전'이 개최된다.

/이만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전통성당 인근에서 공약발표 및 유세를 하고 있다.

국힘 김문수 후보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주 전통성당 앞 유세…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설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전주를 찾아 “2036년 하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통성당 앞 유세에서 “전북이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서울시를 이긴 비밀을 안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은 미적지근했다. 미적지

근한 물이 바다 같이 많아도 뜨거운 물 한방울이 이길 수 있느냐”며 “전북도민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계올림픽(유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만금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며 “과감한 국가 지원, 세금 감면, 좋은 인력 공급 3박자를 통해 세계적인 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뉴시스

민주 선대위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진짜대한민국선대위' 자사니즘위원회 노동존중사회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원회 위원 5,000여명을 대표하는 위원 600여명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받는 자리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유동수(인천 계양갑, 자사니즘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인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를 핵심 가치로 삼고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호영 위원장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플랫폼 노동자이든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명장을 받은 한 분 한 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사니즘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풍요와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며 “노동과 환경,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실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향후 노동,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실천적 정책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